

# 마을문고 운동의 초기 전개 과정에 관한 연구\*

- 운동형성 배경에서부터 1967년까지를 중심으로 하여 -

## A Study on the Early Developmental Process of Village Mini-Library Movement in Korea

이 응 남(Yong-Nam Lee)\*\*

### 목 차

- |                    |                        |
|--------------------|------------------------|
| 1. 서론              | 5. 1 독서회 조직과 문고 관리 지도  |
| 2. 마을문고 운동 형성의 배경  | 5. 2 월간 잡지를 통한 지도      |
| 2. 1 사회적 배경        | 5. 3 지도자 및 회원 교육활동     |
| 2. 2 인적 배경         | 6. 재원조달 활동             |
| 3. 마을문고의 착상과 추진원칙  | 7. 문고운동에 대한 평가 및 효과분석  |
| 3. 1 자주적인 독서운동으로   | 7. 1 마을문고 운동 모습에 대한 평가 |
| 3. 2 마을문고 운동의 추진원칙 | 7. 2 문고 실태 및 효과분석      |
| 4. 마을문고 설치·보급활동    | 8. 결 론 (정리와 요약)        |
| 5. 문고의 지도·육성활동     |                        |

### 초 록

이 연구는 우리 나라 마을문고 운동의 형성 배경에서부터 1967년까지의 초기 전개과정을 규명해 보고자 한 연구이다. 1961년부터 전국 농어촌 마을에 문고를 보급하기 시작한 이 운동의 추진원칙과 문고설치 및 육성 방침을 분석하고, 이 운동 전개에 필요한 재정조달 과정 및 당시 문고운동의 성과를 평가해 봄으로써 1960년대의 초기 마을문고 운동 전개 과정을 조명하였다.

### ABSTRACTS

The main project of the village mini-library movement is to establish and guide mini-libraries in the rural villages in Korea since 1961 in order to promote reading campaig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nto early developmental process of Korean mini-library movement from the formative period to 1967.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principles of this movement, the policies for rearing mini-libraries, financial accommodation and the performance of this movement in 1960's. The study, in final, reviews the overall figure of the early process of this movement in Korea.

키워드: 마을문고, 마을문고 운동, 농촌도서관 운동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교수

\*\* 본 연구는 2000년도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과제임  
접수일자 2000년 11월 16일

## 1. 서론

마을문고 운동은 1961년부터 추진되어 왔던 우리의 독특한 농촌 소도서관 운동이다. 이 운동은 공공도서관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주민의 독서습관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농촌을 위한 도서관 운동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근대화와 고도성장의 그늘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던 도서관 황폐화 현상을 극복하고자 한 우리의 소중한 경험이라 믿는다.

1970년대 한때에 전국 3만5천이나 되는 방대한 지역의 마을에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마을문고는 바람직한 운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곳에서부터 허울뿐인 유명무실한 문고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숫자만큼이나 그 운영 수준 또한 천차만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내의 도서관계와 문화계 그리고 언론계가 이 운동에 부여하였던 기대는 자못 컸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후 이 운동은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전통적 농어촌마을의 도시화 현상 등 사회구조의 변화, 반복되는 재정위기 그리고 문고 운동 추진 조직의 변혁 등 제반여건의 변화로 인해, 많은 문고가 통폐합되거나 정리되었을 뿐 아니라 단위 문고 운영의 모습이나 추진 주체의 모습 또한 많은 변천을 겪게 되었다.

이제 이 운동의 추진과정과 의미를 역사적

으로 분석하고 정리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되어<sup>1)</sup>, 그 첫 작업으로서 마을문고 운동 형성의 배경에서부터 1967년에 이르기까지의 초기 전개 과정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에 필요한 바탕 자료는 각종 출판물의 기록과 행정문서 그리고 필자의 기억과 창설자 면담의 확인을 기초로 하였다.

## 2. 마을문고 운동 형성의 배경

### 2. 1 사회적 배경: 해방이후의 독서환경

#### 2. 1. 1 도서관 사정

1945년 해방 이후 우리나라 독서환경의 중심 기관인 도서관 사정은 매우 빈약하였다. 해방되던 해 남한에 설립되어 있던 공공도서관은 모두 20개가 안되었으며, 그나마 장서 내용도 매우 열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계 지도층과 도서관계 지도자들은 공공도서관이야말로 일제 식민지치하 교육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한 지름길이라 믿어 적극적인 도서관 설치운동을 펼쳤다. 해방 당시 전국 성인 국민의 78%가 문맹인 시점에서(황종건 등 1966, 170), 문맹을 퇴치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일은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의 하나로서 도서관 건립운동을 전개해 나갔던 것이다. 공공

1) 마을문고 운동에 대한 역사적인 정리 작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구체화된 것은 다음의 두 가지 계기에서 비롯되었다. 첫째는, 마을문고 운동이 2001년에 창설 40주년(마을문고 체제 20년, 새마을운동 체제 20년)이 됨으로 이제 정리해 둘 시점이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운동 전개과정에 대한 박사학위논문 준비생(이연옥)이 지난 연초 필자에게 마을문고의 과거에 대해 장시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자료정리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

도서관을 1개 군 단위에 1개씩 설치하자는 이른바 '1군1관(一郡一館)' 운동이 국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것도(박봉석 1947, 1) 도서관 설치를 갈구하던 당시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 확충 운동에 힘입어 6·25 때까지 공립도서관으로는 제주도립도서관·수원부립도서관 등을 비롯하여 5개관, 사립도서관으로는 서울 영민도서관, 진주도서관 등 10개관이 지속적으로 설치되었다. 도서관 증설 문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문제인지라 일부 도서관 지도자들은 정부에 대한 지원요구와 동시에 도서관을 후원할 사회세력을 조직하기도 하여 대구·부산·대전 등지에 도서관 관계자들과 지역유지 중심의 자생적인 도서관후원회가 결성되기도 하였다(이연옥 2000a, 241). 그러나 6·25전쟁을 치르느라 적지 않은 도서관이 훼손되고 전쟁복구 과정에 우선 순위에서 밀려남으로 인해, 우리 나라의 공공도서관 설치 운동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물론, 1950년대 후반에 와서는 중앙정부에서도 공공도서관 특히 농어촌 독서시설의 부족 현상을 인식하고 있기는 하나, 정부 능력보다는 민간단체 등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당시 '문교월보'에 게재된 문교부 사회교육과장의 글을 살펴본다.

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서관 운동은 정부의 시책도 필요하겠거니와……지역사회에 있어서 자치적인 운동과 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시설은 도시에만 집중하고…… 농산어촌에서는 서적 한권 구하기 어려운 사정인바, 이

러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국농촌에 소규모이나마 독서시설을 설치하여 농촌문화의 향상을 기하고자 한다…… 사회 문화운동은 선진국가의 예를 보아도 민간단체가 주동이 되어 지역사회 복지와 발전을 위하여 자치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로서는 이러한 사회운동에 적극 협조하는 위치에 서야할 것이다(남상영 1958, 35).

그리고 당시의 사회여건에서 도서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사회교육 시설로서의 기능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은 당연했을 것이다. 해방 이후의 혼란 속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적 필요에 의해, 또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사회교육이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도서관이 전체 사회교육의 틀 안에서 설정되었던 일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은 수적인 부족뿐만이 아니라, 학생들 시험준비 장소로서의 인식을 벗어나지 못해 결국 학생들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회교육을 위한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다하지 못하였던 것이다(김영문 1948, 2). 즉, 해방이후 1960년도까지의 우리 나라 도서관은 수가 너무 적어 농어민이 혜택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었으며, 그 도서관이나마 대다수가 학생들의 공부방으로 이용됨으로써 독서진흥을 통한 사회교육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2. 1. 2 농촌 독서운동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맹자가 많고, 교육수준도 뒤떨어지며, 도서관 이용 혜택이 적은 농어민에게 특별히 독서를 권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당시 도서관계는 물론, 사회 각계에서 제기되었다. 일찍이 1935년도에 '농촌도서관의 경영법'이란 단행본 책자를 발간하여 농촌 독서활동을 주창해 온 이재욱(해방 후 국립도서관장)은 위 책자의 첫머리와 국립도서관 기관지(文苑)에서 농촌도서관 및 독서운동의 절실함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도시인이나 농촌인이나 다 각기 관심 가져야 할 농촌진흥의 원동력은 무엇이며 그 지도의 중임을 담당할 자는 그 누구일가. 그 원동력은 문맹타파일 것이요, 그 지도의 역할을 담당할 자는 지방유지 제세이다. 그러면 이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가. 그것은 전 조선적으로 농촌도서관 운동열을 고취하여 일반에게 도서관 특히 농촌도서관이 가지는 바 사명을 충분히 인식시켜 그 건설 발전을 촉진함에 있다고 하겠다(이재욱 1935, 1).

우리 농촌에는 독서기관의 설비가 거의 없어 외국 의 그것에 비해서 말할 것도 없고 또 일반적으로 봐서 독서열이 극히 희박하다. …… 몇 지방에서는 비록 소규모이지만 독서기관이 신설된 것도 있고 또 중앙으로부터 순회문고를 회송받아 이것을 이용하는 지방도 적지 아니함은 ……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이제 그 타개책으로서 우견 한들을 들어 본다면, 첫째로 농촌인은 신조선의 국민이 되려면 사회물정에 대한 어느 정도의 비판안을 가져야 한다는 자각을 해서 근로의 틈을 타서 독서를 하는 새로운 결심이 필요하고, 둘째로는 이 농촌인들에게 어떠한 책을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다 …… 양서를 발간하게 하여 이를 농촌에 보급하고 …… 이와 동시에 농촌에 독서기관의 설치, 순회문고의 회송, 도서의 기증 및 엽가제 공 등에 정부 지방단체 및 유지들은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이재욱 1947, 1).

즉,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농어민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농촌의 독서운동이 절대 필요한데, 이의 지름길은 농촌도서관 설치를 촉진하고 농어민에게 제공할 양서의 발간 보급이 시급하다는 요지이다.

그리고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농촌독서운동의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방안은 순회문고 운동이었다. “도서관은 대중에게 최대한으로 도서를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만큼, 이러한 목적을 더욱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순회문고의 보급이 필요하다”는 주장(박희영 1947, 1)을 필두로 하여,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에게 독서기회를 제공하는 실천방안으로 순회문고운동이 시작되어, 1947년 국립도서관과 경기도 성인교육협회가 공동의 사업으로 경기도내 각 지역에 1개월 기간의 순회문고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도서관을 거점으로 한 농어촌 독서운동으로서 또 한가지 주된 활동은 '농촌에 책보내기 운동'이었다. 농어촌에는 도서관이 부족하고 읽을 책을 사보기도 어려우니 만큼, 도시에서 책을 모아 보내주자는 운동이었다. 1948년에 경기도 학무국 사회교육과에서 헌책을 수집하여 농촌의 각 군·면에 간이문고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부터 비롯해(日本圖書館協會 マウル文庫調査研究 臨時委員會. 1987, 164) 일부 사회단체나 개인 차원에서 전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순회문고운동이나 책보내기 운동은 1950년대 중반까지는 일부분의 제한된 지역에서만 산발적으로 전개되었던 것

으로 보여진다<sup>2)</sup>.

그러다가 1950년대 중반부터 농어촌 책보내기 운동에 중앙정부가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그 명분은 첫째,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농어촌에 문화혜택을 제공하자는 것(남상영 1958, 35)과 둘째, 문맹퇴치로 인해 국문을 해독하게 된 농어민들이 다시 문맹으로 환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들에게 독서자료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최제만 1959, 58)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교부 사회교육과가 1956년 4월에 전국의 국민학교 4학년 이상 대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헌책 수집운동을 전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년도 예산에 농촌 문고 설치비로 3,700만환을 계상하여 전국의 모범 농촌 약 1,600개소에 문고를 설치해 주기로 하여(동아일보 1956), 1957년도에는 농산어촌에 도서 5종(5,000)권을 배부하여 이른바 '농촌문고'를 설치하였는데(문교부 1958a, 76), 문교부 자료에 의하면 1957년도에 전국에는 299개소의 농촌문고와 113,368권의 장서가 있었다 한다(문교부 1958c, 123).

그리고 1958년에는 6월과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 전국 도시지역의 각급 학교를 통해 유휴 도서를 수집하여 농촌문고 설치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당시 계획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대학생과 고등학생은 1인당 2권씩, 중학생은 1권씩의 책을 수집하여 1개 농촌 마을당 2상자(1상자는 무게로 6-8관)씩의 책을 배

부하도록 되어 있었다(문교부 1958b, 117-119). 그 이후에도 문교부에서는 매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농어촌 책보내기 운동을 지속하여 왔음을 밝히고 있다(문교부 1959, 35, 문교부 1960, 11).

한편 5.16 군사혁명 이후 법에 의해 발족된 재건국민운동 사업에서도 문고 보급 활동이 전개되었다.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는 휴지 등 폐지를 모아 재생하고 이의 판매대금으로 농어촌 및 전방 일선고지에 문고를 보급한다는 취지 아래 1962년, 기금 조성을 위해 기관들을 대상으로 휴지수집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얻은 수익금으로 전국 농어촌 마을 중 100개소와 일선지역 10개소에 도서 총 10,670권을 보내주는 실적을 올리기도 하였다(황종건 등 1966, 128).

엄대섭도 1951년 울산에 사립무료도서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농어촌 주민에게 독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의 순회문고 50개를 농촌마을에 돌렸다. 또한 그는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장을 지내면서도 농촌에 책 보내기 캠페인을 벌여 각급 학교와 도시에서 헌책을 거두어 농촌으로 보냈다.<sup>3)</sup>

이렇듯 책이 부족한 농어촌에 책을 보내주는 운동은 농촌 사회교육 운동의 일환으로 주로 정부기관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사회단체나 개인 차원에서도 산발적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2) 당시 문교부에서 발간해온 <문교월보>의 기사를 조사하여 본 결과, 농어촌 주민에 대한 사회교육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1950년대 중반까지는 도서관이나 독서문제에 관한 관심이 아주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선근 문교부장관의 1955년도 '당면한 문교 시책' 기사(문교월보 20호, 6-7)에서는 6대 교육시책 중, 다섯 번째 시책인 '성인교육 및 문맹퇴치 사업'에서도 도서관이나 독서진흥의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3) 이 내용에 대한 과정과 평가는 다음의 2.2.2항과 3.1항에서 재론될 것이다.

해방이후 마을문고 운동 시작 이전까지의 독서환경에 대해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 이후의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당면 과제로서 사회각계에서는 국민 대중 특히 농어민의 지적 수준을 높이는 일이라는 인식은 지니고 있었다. 둘째, 국민에게 독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공공도서관은 그 수나 질적인 면에서 너무 열악하여 농민이 이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대다수가 학생들의 공부방 구실에 머물러 있었다. 셋째, 정부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는 농촌 독서운동의 필요성을 시대적인 요청으로 받아들여 추진하여 왔는데, 주로 행정조직의 힘을 빌려 농촌 책보내기 운동에 치중하였다.

## 2. 2 인적 배경

마을문고 운동이 형성된 배경을 살피기 위해서는 이 운동을 착상하고 전국적인 조직으로 이끌어 온 업대섭의 정신적 동인과 도서관 활동을 파악하여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그의 성장과 활동과정을 추적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 2. 2. 1 정신적 동인

업대섭의 성장과정 중에서 특별히 두드러진 점으로는 첫째, 그는 극심하게 가난한 가정에서 불우한 소년시절을 보내면서 자수성가하였다는 점이다. 경남 울주가 고향인 그는 소작농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생계가 막연하여 부모와 함께 여덟 살 때 일본 땅에 가게 되었다. 공사장의 인부로 이 지방 저 고을로 부모를

따라다니느라 갖은 고생은 다하는 과정에서 어린 시절 그의 절대적인 관심은 돈버는 일이었다. 신동아 잡지에 실린 그의 수기는 이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가친이 교통사고로 불구가 되어 나는 14세의 어린 몸으로 다섯 동생을 양육하는 책임까지 져야했다. 논 한 두락의 크기조차 모르던 나는 논 열 두락만 있으면 고향에 돌아가서 잘 살수 있다는 부모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그때 고생 속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꿈이었다. 나는 두부장수, 세탁소 점원, 방직공장의 직공 등 아무 것도 가리지 않고 닦치는 대로 마구 잡역을 해나가면서 자나깨나 항시 돈벌 궁리에만 몰두해 있었다(업대섭 1968, 251).

온갖 험하고 힘든 일거리를 찾아 열심히 일해도 어머니의 날품팔이 수입을 합쳐야 겨우 연명하기에 바쁜 실정인지라,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를 해서 돈벌자고 폐품 모으기 행상에 나섰다. 그리고는 마침내 희한한 광고지 아이디어로서 돈벌이 사업에 대성공을 하게되었다 한다. 이러한 그의 돈버는 솜씨가 남다른 점으로 인해 그는 일찍이 주변으로부터 장사 솜씨를 인정받았으며, 해방 후 귀국해서는 경주지방에 100여 두락(2만여 평)의 농토와 시내에 훌륭한 기와집도 매입하고, 울주군에 멀치잡이 어장도 사들이는 등(업대섭 1981b, 82-83) 상당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둘째로, 그는 정규 교육보다 책읽기를 통한 독학으로 자기성취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공사장 인부로 전전하는 부모를 따라 다니느라 초등학교를 다섯 번이나 옮겨야 했고 줄

업조차 제대로 못하였다. 후에 야간 상업학교에도 적을 두긴 하였지만 학교생활에 충실할 수는 없었다. 그 대신 틈만 나면 책을 구해서 읽는 것이 유일한 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그는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여러 가지 책을 쉬지 않고 탐독하였고, 새로운 지식만이 인생에 성공을 가져온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다음 글에서 그의 소년시절 학교생활의 어려움과 책읽기에 대한 그의 정열을 엿볼 수 있다.

하루는 수업 중에 교장실로 오라는 전갈이 왔다. 신문사에서 왔다는 두 사람이 있었다. 小倉市の 부호인 北川 씨가 나를 맡아 주겠다고 하니 공부만 잘 하면 지금부터 중학,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의 모든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런데 내 입에서는 정말로 뜻밖의 대답이 나왔다. 학비 원조를 거절했던 것이다. 내가 번 돈으로 공부하지 남의 도움으로 공부할 생각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것은 나의 속마음은 아니었다. 나는 소년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생각해야하는 터이라 어린 오기심으로 그런 대답을 하였던 것이었다.

내가 도서관을 알게 된 것은 이 무렵(소학교 2학년 때)이었다. 훌륭한 건물에 많은 책을 두고 무료로 마음껏 읽을 수 있다니 꿈만 같았다. 하루는 학교에 가지 않고 시립도서관으로 갔다가 도서관 직원이 설득하는 바람에 다시 학교에 가느라 지각한 일까지 있었다. ……( 소학교 5학년 중퇴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돈벌이 생활 시작)……나는 이 때부터 독서에 큰 취미를 붙이고 살았다. 나의 배움에 대한 욕망과 가난에서 오는 외로움을 책이 달래준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책은 가까운 대본 집(도서 대여점)에서 빌려 보았는데 적은 돈으로 마음대로 빌려 볼 수 있

었다. 나는 틈만 있으면 잡지도 단행본이고 가리지 않고 탐독했다(엄대섭 1981a, 38).

셋째로, 그에게는 결정적인 인생의 계기가 몇 번 있었는데 대체로 그 때마다 책에서 받은 영향이 컸다는 점이다. 어렸을 때 그는 위인전과 거부열전 같은 책을 집중적으로 탐독하였는데 돈벌이에서 기반을 마련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렇게 술회하고 있다.

타치는 대로 책을 읽던 중, 어떤 교양전서에서 “남의 흉내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같은 일이라도 남이 안 하는 방법을 고안해내야 한다.”는 대목을 읽고 자극을 받았다. 3, 4개월을 방구석에 처박혀 병자처럼 덩굴면서 ‘남이 안 하는 기발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는 마침내 묘한 착상을 해냈다. “비상시국하에 부유하다 해서 재활용할수 있는 고의류를 사장해서 좀 먹혀 버리는 것은 비국민이다……이러한 고의류를 매입하기 위해서 x월x일x시에 귀택에 들르고자 하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광고문을 찍어서 부유층의 집집마다 돌렸다. 과연 성과는 좋았다. 이들이 입지 않는, 과히 헐지도 않은 옷들을 모조리 끌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사들이며 팔며 하는 동안 돈을 모으게 되었다(엄대섭 1968, 251-252).

이 때부터 그는 책을 ‘단순한 교양 만으로 서가 아닌 생존경쟁의 무기’ 또는 ‘만능의 신’ 처럼 생각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엄대섭 1981b, 82) 뿐만 아니라 그가 도서관운동에 투신하게 된 동기도 젊었을 때 일본 공공도서관의 기억이 잠재의식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신희시절 처가 가 있던 일본 어느 지역(徳山市)을 여행하던

중, 한 부호의 자손이 사립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는 크게 감동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도 장래 부호가 되어 큰 도서관을 지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무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아마도 자신이 우연한 계기로 평소 생각지도 않던 도서관에 투신할 것을 결심한 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모른다는 것이다(엄대섭 1981a, 38).

그러나 그는 자기 인생의 진로는 책 한 권이 결정적으로 방향을 바꾸게 하였다고 믿고 있다. 해방과 더불어 귀국한 엄씨는 생활에는 걱정이 없고 해서, 한 1년간을 그럭저럭 일 자리를 잡지 않고 놀았다. 사업을 하기에는 사회가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사립학교를 세워 볼까라는 생각도 했으나 그 정도의 재정형편은 되지 못해 그만두고, 책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어 여기 저기 고서점을 돌아다니던 중 구입한 책 한 권이 결정적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1950년 어느 여름날이었다. 부산 시청 앞 고서점(노점)에서 일찍이 보지 못한 종류의 한 책 한 권을 샀다. 〈圖書館의 運營と實際〉라는 당시 내 나이 정도쯤 오래된 낡은 일서였다. 내용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운영법이었다. 공공도서관이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알맞는 사업이란 생각이 들었다. 결국 이 한 권의 책이 내 인생의 진로를 결정한 셈이었다…… 나는 지금도 만약 그때 그 한 책 한 권을 만나지 못했더라 도서관과는 인연이 없는 인생을 살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엄대섭 1981b, 83).

결국 그는 돈벌이 사업에 있어서도, 또는 인생 진로에 있어서도 책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즉, 그의 독서와 도서관에 대한 신념은 젊은 시절의 가난 극복과 자아성취 등 자기자신의 인생 체험을 통한 확신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 2. 2. 2 도서관 활동

1951년 여름, 엄대섭은 개인이 갖고 있던 3,000여권의 책을 모두 가지고 울산으로 가서 사립도서관을 열었다. 도서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만화가게 정도로 빈약한 시설이었다고 한다. 당시에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대개가 학생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그 이외에는 회사원, 공무원 등 일부 식자층이었다. 본래 그가 의도했던 것은 책이 없어서 독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민중에게 골고루 책을 읽히도록 하는 데에 뜻이 있었으나 도서관 이용 계층을 보면 도서관이 없어도 충분히 책을 구해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중심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는 상당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였다 한다. 그래서 그가 농민들에게 책을 읽히기 위한 방안으로 만들어낸 것이 탄환상자<sup>4)</sup>를 이용한 50개의 '순회문고'였다(엄대섭 1968, 252). 처음에는 많은 환영을 받았으나 얼마 지나자 농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읽힐만한 새로운 책도 부족하였고, 또한 워낙 독서인구가 적어서 커다란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사실 도서관에 대해 경찰의 뒷조사와 의혹의 눈초리에 어려움이 컸다고 한다. 큰 자산가도 아닌데 무료도서관을 경영

4) 6·25 직후의 시점인지라, 전쟁의 부산물인 철제 탄환상자(폐품)에 페인트를 칠해 순회문고 상자로 사용하였다.



하는 이유가 무엇이나는 것이었다. 사상적이거나 혹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러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였다고 한다. 소장 도서 특히 일본잡지들 중에 불온서적이 있는가와 업체섭의 주변을 조사하고 일을 방해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때에 그는 공익사업은 커다란 재벌이나 사회인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이 도서관을 지방정부에 기부체납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한다.

처음에는 울산읍장을 찾아가서 도서관 일체를 기부할 터이니 읍에서 운영해 달라고 간청했으나 한마디로 거절당하고, 다시 찾아간 곳이 당시 경주 읍이었다고 한다. 그는 도서관과 시설을 경주시에 기증하고 무보수 촉탁의 지위로 경주도서관장 일을 보는 한편 경주시 변두리의 농촌을 돌아다니며 책읽기 운동에 주력하였던 것이다(업체섭 1968, 251).

그러던 중 서울에서 열린 전국 도서관대회에 참석한 업체섭은 독서운동 전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도서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도서관 운영방법은 기업 경영적인 안목을 갖고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여<sup>5)</sup> 많은 도서관 인사들의 공명을 얻었고, 그 후 도서관 협회 초대 사무국장이 되었다. 그는 도서관협회 사무국장을 지내면서 농촌의 독서 진흥을 위해 협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마음을 먹고, 첫 사업으로 농촌에 책 보내기 캠페인을 벌였다. 그 결과, 각급 학교에서 헌

책을 거두어 농촌으로 보내는 운동을 계속하였던 것이다.

### 3. 마을문고의 착상과 추진원칙

#### 3.1 자주적인 독서운동으로

해방이후 비교적 사회의 폭넓은 호응을 받아 전개되었던 농어촌 책보내기 운동은 지속적으로 관리되거나 지도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새로운 책이 계속 보충되지 못해 거의 대부분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었다. 당시의 농촌 책보내기 운동의 문제점에 대해 교육학자인 서명원은 이를 매우 자세하게 분석·비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서명원 1971, 3).

- ① 농민들이 배워야하겠다는 자발적 의욕이 없을 경우, 교육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 ② 도시에서 보내준 서적이나 잡지는 농민들의 지식수준이나 문화환경에 걸맞지 않는 것이 많았다.
- ③ 일방적 도움을 받는 자는 고마우면서도 모멸감을 느끼기 마련인데 떨어진 헌책은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을 것이다.
- ④ 강제적인 헌 책 모으기로 수집된 책의 내용이 불품없고, 그 중에서도 쓸만한 책은 배포 과정에서 적당히 자취를 감추

5) 도서관 운동이나 관리에도 기업 경영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의 신념과 실천의 노력은 마을문고 운동을 시작한 후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면면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철저한 물자·시간절약운동, 모든 직원을 일류 기업체에 방문토록 하여 근무자세 견학 활동, 직원의 합숙 극기훈련 등, 당시 일반 도서관 직장 분위기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관리기법을 주기적으로 시도하였다(박경용, 『막사이사이상 수상자들의 외길 한평생』 참조).

었다 한다.

- ⑤ 관에서 행정적으로 배포한 책이 자발적으로 읽히기 어렵다. 농촌 현지에 독서를 자극하고,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있어야만 한다.

업대섭 또한 오랜 동안의 책보내기운동 결과에 대해 실패를 자인하게 되었다. 그 원인은 공짜로 주는 책이란 '읽을 사람 본위'가 아니라, 체계 없이 모아진 '주는 사람 본위'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기증된 책이 어느 정도 보관되고 이용되었으나, 대부분의 책들은 도배지나 휴지로 이용되기 일쑤였다는 것이다. 사실 농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헌 책들은 대부분 그들에게 이용 가치가 없고 자발적으로 읽히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시행착오였음을 알게 되었다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가 새로이 생각한 방법은 자주적인 방법의 독서운동이었다. 신동아 잡지에 실린 그의 술회를 들어본다.

1960년 어느 늦은 가을날, 경주시 변두리 농촌을 순회하면서 나는 순간적으로 8년간의 시행착오를 깨달았다. 그것은 나의 주관적인 선의가 결과적으로는 농민들을 하나의 책 걸인으로 만들어 그들의 자주적인 능력을 오히려 가로막아 왔다는 것이다. 그 순간 나는 뼈아프게 책임을 느끼고 농민들의 독서운동은 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책을 사보는 자율적인 운동으로 추진해야 하며, 그 방법으로 그들 가까이 그들이 읽고 싶은 책이 비치된 소도서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업대섭 1968, 252).

농민들이 책을 사볼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

지라도, 책을 공짜로만 보내줄 것이 아니라 마을에 독서회를 조직하고 활성화시켜 그들 스스로가 펀돈을 모아 공동의 책을 사보도록 하는 자율적인 운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믿음이었다. "선진국은 먼 정도의 단위까지 공공도서관이 설치되고 '북 모빌'이 산간 벽촌까지 다니고 있으나, 후진국에 있어서는 소수의 형식적인 도서관만이 있을 뿐이다..... 공공도서관의 개념이 낙하산 식으로 위에서 민중에게 책을 내리는 방법이라면 마을문고는 밑바닥의 민중을 조직하여 민중 스스로의 힘으로 '독서하는 권리'를 쟁취하는 하나의 문화혁명"(업대섭 1968, 252-253)으로서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업대섭은 민중과 유리된 후진국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중의 독서관리를 쟁취하는 방안으로서, 주민들을 스스로 조직하여 마을단위 소규모 독서시설을 운영하며 육성하도록 하는 마을문고 운동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리고는 마을문고의 전국적인 보급운동을 위해 1961년 '마을문고보급회'란 단체를 설립하게 된다.

과거 농어촌 주민들을 위한 책보내기 사업이 농촌문고, 향토문고, 국민문고 등 각종 명칭으로 여러 기관에 의해 실시되어 왔으나, 마을문고보급회에서는 독서운동 추진방법과 운영방법을 달리하여 농어촌 독서운동의 명칭과 조직을 <마을문고>라는 이름으로 통일시켰던 것이다(황중건 등 1966, 139).

### 3. 2 마을문고 운동의 추진원칙

#### 3. 2. 1 도서관 축소 형태로서의 문고

마을문고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

은 '문고를 정규 도서관의 축소 형태로 만들어 도서관적인 시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논리였다. 마을문고가 책보내기 운동처럼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하는 만큼 이러한 개념설정은 이 운동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을문고는 책을 넣어 관리할 수 있는 문고함(책장) 주민으로 조직하여 문고의 운영 주체가 되는 독서회 쉽고 재미있으며 유익한 선정도서, 이상의 세 가지를 기본 요소로 구성하게 되었다. 즉, 도서관의 3대 요소인 '시설·직원·장서'를 마을문고의 기본요소로 적용하여, 책장은 마을 도서관 건물 구실을 하고, 독서회는 도서관 직원 구실을 하도록 개념을 설정하였던 것이다.

### 3. 2. 2 자연부락 단위로 설치

마을문고가 설치되는 단위 지역을 어느 정도 범위로 하느냐의 문제도 생각할 문제였을 것이다. 그런데 마을문고는 농어촌 자연부락(마을) 단위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독서습관이 부족하고 도서관 이용경험이 별로 없는 후진국의 민중일수록 책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 실효가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농촌의 자연부락은 face-to-face의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we-feeling이란 운명공동체적인 귀속의식을 가지고 있다(한국농촌사회연구회 1965, 125-126). 즉, 공동생활의 출발 단위로서 상부상조해온 전통적 사회집단의 최소 단위이며, 온 마을 사람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새로운 움직임만 있으면 그 효과를 보기도 쉬운 소집단이므로, 마을문고설치를 자연부락 단위로 한 것은 한국 실정에 맞춘 전략으로서 평

가받고 있다(서명원 1971, 4).

### 3. 2. 3 자율적인 관리·운영

마을문고 운동은 마을 지도자들에 의한 자율적이고 자조적인 독서운동이란 점을 강하게 표방하였다. 이는 과거 책보내기 운동의 시행착오가 계기가 되어 이를 거울삼아 출발하였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생각한다. 마을문고 운동이 과거 독서운동의 허점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서명원(1971, 4)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마을문고 운동은 타율적인 독서운동에서 자율적인 것으로, 의타적인 것에서 자립적인 것으로, 비조직적인 것에서, 조직적인 것으로, 비실용적인 것에서 실용적인 것으로 기본방향과 방법에 일대 전환을 가져 왔다. 마을문고 운동이 단시일 내에 전국적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마을문고 운동의 기본전략이 심리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현명하고 건전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마을문고는 기부 받은 서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책을 그들의 힘으로 구입한다는 데에 묘미가 있다. 무상원조를 받은 것이 국가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되듯이 농촌문고와 같이 거저 얻어 볼 수 있는 도서에 대한 태도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것이다.

즉, 마을문고는 일방적인 책보내기 운동의 의존성에서 벗어나, 독서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보고 싶은 책을 구입하여 운영해 나가는 자율적인 방법의 독서운동이라 할 수 있다.

### 3. 2. 4 공공도서관의 보완적 운동

마을문고 운동은 공공도서관을 대치하고자

하는 운동이 아니라, 열악한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을 보완하려는 데 궁극적인 이상을 둔 운동이다. 즉 “마을문고는 장차 공공도서관이 양과 질면에서 충실해지고 관외봉사 중심의 제기능을 수행하게 될 때 그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흡수되어 ‘공공도서관망’을 형성, 마을단위 최일선 조직 또는 봉사거점으로 활용될 것이 기대되는 소도서관 운동”(이용남 1979, 67)이란 점을 표방하였다.

일선 마을단위 지도자들까지는 이러한 목표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적어도 당시 임대섭과 필자를 비롯한 운동주역들은 마을문고 운동의 성격을 어느 시점까지의 과도기적인 운동이라고 규정하였다. 그 어느 시점이란 공공도서관이 놓여준 시·군 또는 읍·면 단위까지 설치되어 마을문고가 공공도서관의 하부구조로 연계될 수 있을 때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 시점이 되면 궁극적으로 공공도서관이 관내 마을문고를 지도·관장하고 마을문고는 공공도서관의 분관체제 또는 봉사거점으로 흡수되어 제도권 도서관운동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sup>6)</sup>(이용남 1977, 35).

위에서 살펴본 마을문고운동 추진 기본 원칙을 정리하여 보자면, 첫째로 마을문고는 정규 도서관을 축소한 개념에 따라 도서관적인 시각으로 전개되는 도서관운동이란 점이다.

둘째로, 마을문고는 60년대의 농촌사회의 전통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그 설치 대상 지역을 주민이 쉽고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자연부락 단위로 하였다. 셋째로, 마을문고는 해방직후의 일방적인 책보내기 운동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보고 싶은 책을 구입해 나가면서 문고를 자율적인 방법으로 관리·운영하는 독서운동이란 점이다. 넷째로, 마을문고는 공공도서관을 대치하고자 하는 독서시설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을 보완하여 궁극적으로는 공공도서관 시스템으로 편입되고자 한 운동이었다는 점이다.

#### 4. 마을문고 설치·보급 활동

위에서 살펴본 바의 과정을 거쳐 임대섭은 전국적인 마을문고 설치·보급 운동을 시작하였다. 농촌 자연부락 단위에 설치되는 독서시설의 명칭으로서는 당시로는 아주 생소하였지만, 우리 고유의 어휘를 사용하여 <마을문고>라는 이름으로 정하고<sup>7)</sup>, 1961년 2월 1일 ‘마을문고보급회’란 단체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설치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그 당시까지 맡고 있던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장직을 사임하였다. 얼마간의 개인 재산을 정리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6) 이러한 전략은 전남 강진군, 경북 경주시(강예린 1970, 28-29, 데이비드 케이지 1970, 61-62) 등의 지역에서 공공도서관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일부 시도되고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60년대 마을문고운동의 중점 사업은 문고설치였으며, 공공도서관 또한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빈약하여 그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하였다.

7) ‘마을문고’라는 이름은 이를 경주 변두리 탑마을에 시험 중이던 1960년도에 경주시립도서관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종준이 작명한 것을 받아들였다 한다(월간 마을문고 88호, 11쪽). 김종준은 경주시립도서관 시절부터 시작하여 초창기에 사무국장을 지내는 등 오랜 동안 임대섭을 보좌해오면서 도서관 및 문고 운동을 함께 하였다.

우선 자택(서울 미아리 고개 근처 소재)에 사무실을 차리고 운영비로 사용하면서 문고 보급운동에 착수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에 가서야 단체창립 취지문과 단체의 정관, 그리고 독서회 회칙(준칙)을 만든 것으로 보아, 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기까지는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때의 사업내용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고향에 마을문고를 설치해 주도록 설득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세상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마을문고운동은 일반사회의 인식을 얻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설치한 문고는 첫해에 고작 26개, 1962년에도 불과 1백여 개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무렵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당시 엄대섭 회장의 회고담을 들어 본다.

내가 정부의 자금보조를 받고자 문교부에 부지런히 출입하던 때였다. 1962년 6월 30일 아침, 문교부 관계자로부터 마을문고의 실물이 어떠한 것인지 모양을 보여달라기에 당일로 문고함 하나를 지게에 지고 가서 문교부 현관에 두었다. 마침 이것이 문교부 출입기자단의 눈에 띄게 되었다. 한 기자가 기발한 착상을 인정하는 듯 기자실에 와서 취지설명을 해달라고 청했다…… 바로 그날 오후에 여러 신문사의 출입 기자가 사진기자와 같이 사무실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를 취재해 갔다. 다음날부터 3일에 걸쳐 모든 중앙지에 대문짝 만하게 크게 보도되었고 통신을 통해서 지방신문에도 많이 보도되었다…… 역사는 하루아침에 변한다는 말이 있지만, 나와 나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될 줄은 미처 생각해 본 일조차 없었다. 사무실에는 자기 고향이나 연고지에 문고를 설

치하겠다는 독지가가 연달아 찾아왔다…… 이것이 마을문고 사업발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엄대섭 1968, 256).

그후 어느 신문사로부터 '신문사 사업으로 문고 설치기금을 모집해 줄 터이니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한다. 당시 엄대섭 회장은 특정 신문사의 단독후원보다 여러 신문사의 공동후원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마해송(당시 명예회장, 아동문학가)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여러 언론기관에 공동후원을 의뢰하였더니 다행히 전 중앙지와 방송국 그리고 일부 지방신문이 이에 응해 주어, 1963년 3월 7일부터 각 언론사의 공동 캠페인이 전개되었다. 각 신문사에서는 사고(社告)를 내어 문고 설치기금을 모금하고 거의 매일같이 기탁자의 명단을 신문에 발표해 줄 뿐만 아니라, 사설 등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오늘날의 시각으로서는 의외의 성과라고 판단된다.

각 언론사의 마을문고 캠페인은 약 1년 만인 1964년 2월말까지 1,341개의 문고 보급 실적을 올렸다. 이러한 언론 캠페인은 도시거주 독지가들이 자기 고향에 또는 농촌 마을에서 자력으로 문고를 설치하던 초기 양상으로부터 사회 각계의 유명인사와 각급 단체와 기관에서도 문고설치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편 정부의 행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도 결실을 보게되어 1963년부터 문교부에서 마을문고진흥회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게 되고, 내무부에서는 각 시·군에서 지방비로 관내에 문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성

과가 문고설치 사업을 안정 궤도에 오르게 한 결정적인 힘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67년 말까지 무려 9,850개에 이르는 마을에 문고를 설치하게 된다.

## 5. 문고의 지도·육성활동

마을문고는 주민들 스스로 책을 늘려나가면서 읽도록 하는 자주적인 독서운동인 만큼 문고설치보다 이를 관리하고 육성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다. 바로 이것이 과거 농촌 책보내기 운동과 다르다는 점이니 만큼, 문고운동 초기 주역들은 처음부터 문고의 지도육성사업에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 5.1 독서회 조직과 문고 관리 지도

처음 문고보급 당시에 문고 기증자가 연고지에 문고를 설립하려면, 우선 그 마을에 독서회를 조직해야만 되었다. 또 독서회가 조직되고 문고가 설립되었다고 해도 독서회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책을 늘려나가고 독서 계도활동을 하지 않으면 설립자의 양해를 얻어 다른 마을로 문고를 이전하겠다는 경고도 보인다. 실제로 독서회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다 하여 다른 마을로 문고를 옮긴 사례는 많지 않지만, 문고는 일단 설치만 하면 끝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관리·운영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로 생각되는 바, 초기부터 문고

운영 주체인 독서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듯 독서회의 조직과 활동은 '마을문고진흥회'<sup>8)</sup>가 가장 역점을 두고 지도해 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서울)에서 소수의 인력으로 전국 농촌에 산재한 마을의 독서회를 지도하여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기는 사실상 쉽지 않았으리라는 판단이다.

독서회는 중앙에서 제정한 준칙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였으며, 독서회가 하는 일은 마을 문고 돌보기, 책 빌려주기, 책 늘이기, 함께 탐독하기, 문고 시집보내기 등이었다. '문고 시집보내기'란 문고의 활동이 활발하여지면 순회문고 함을 만들어 이웃 마을에도 책을 읽혀 그 마을에 문고설립을 자극하고 확산시키자는 것이다. 독서회는 회원들의 회비와 찬조금, 곡식 모으기, 공동작업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새책을 구입하도록 지도하였다.

초창기 마을문고의 장서는 대개 수백 권 정도를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책의 분류에는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었다. 도서는 단행본과 잡지류로 나누고 단행본은 다시 농어업분야, 생활분야, 교양분야, 문학분야, 아동분야, 기타로 구분하여 책장에 꽂아두도록 지도했다.

마을문고진흥회는 초창기부터 단위 문고에서 손쉽게 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서정리용 '도장' 3종(장서인·구입인·기증인)과 '대장' 4종(도서원부, 대출대장, 회원대장, 독서회의록 대장)을 제작하여 전국 문고에 보급함으로써 문고관리의 효율화와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8) '마을문고보급회'라는 단체 명칭은 1962년 7월 11일 '마을문고진흥회'로 바뀌었으며, 1968년 1월 다시 '마을문고본부'로 변경되었다.

## 5. 2 월간 잡지를 통한 지도

일선 마을문고 회원들의 지도를 위해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은 1964년 3월에 창간하여 전국 모든 문고에 무상으로 배포한 월간 '마을문고' 기관지였다. 이 마을문고 잡지는 창간 첫해에는 매호 국판 20면에 표지도 없이 갱지에 활판으로 인쇄되었다. 이 잡지는 문고의 관리방법 지도와 우수 운영사례 소개 등 독서회원 교육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마을문고진흥회와 전국 문고를 연결시키는 신경조직 구실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첫해에는 매월 3,500부씩을 발행하여 전국 문고와 관계 기관에 무료로 배포하였다.

1965년에는 24면으로 증면되었고, 다시 다음 해부터는 아트지 2도 인쇄의 표지에 부피도 50면으로 늘어나 완전한 잡지체제를 갖추었다. 1966년도에는 매월 11,000부씩, 그리고 다음 해에는 매월 16,000부씩 발행하는 등 문고 수의 증가에 따라 월간 기관지의 발행 부수는 매년 급격히 늘어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5. 3 지도자 및 회원 교육활동

마을문고진흥회에서는 각종 집회를 통한 교육활동과 특정지역에 대한 순회교육 등에도 역점을 두었다. 1965년 전남 강진군립도서관에서 열린 시범군협의회는 전국의 모범 마을문고 독서회장들과 강진군 관내 마을문고 독서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전국 단위의 첫 번째 행사였다. 이 행사에서는 문고운영 사례발표와 토론을 통해 마을문고 관계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교육의 자리였다. 발표된 내용

은 문고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도서 구입비 마련 방법, 독서습관을 기르는 방법,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을 실생활에 응용시키는 방법, 독서회가 행정기관이나 농촌지도기관에 협조하는 방법 등 문고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문제들이었다.

전국적인 집회를 통한 교육은 마을문고 대표자대회로 정착되어 갔다. 1965년 11월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하여, 다음 해에는 경기도 파주군립도서관에서, 그리고 다음 해에는 경북 경산군에서 대회를 열었다.

그 이외에 마을문고진흥회에서는 시범지역이나 특수한 필요가 있는 지역의 문고들을 순회하며 지도하는 방법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지도·교육방법은 1963년부터 시작하였으나 전국 마을을 골고루 순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가 아니라, 일부 지역의 문고라도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연구함으로써 문고운동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현장과 유리되지 않는 육성방침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던 것이다.

## 6. 재원조달 활동

마을문고 운동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장기간 동안의 재원조달 노력과 그 결과라고 생각한다. 한 개 도서관이나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운동이 아니라, 전국의 수천·수만 마을을 대상으로 한 민간단체 운동으로서, 오랜 세월동안 그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유지하여 왔는가 하는 문제는 후대의 중

요한 연구 분석 대상이라고 믿는다.

마을문고 운동에 투입된 재원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운동 주도세력 또는 민간 후원자들의 기부금으로 형성되는 자체자금이며, 둘째는 국고보조금, 셋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주로 문고설치예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초창기의 문고운동 재원은 어쩔 수 없이 창설자인 업대섭의 개인부담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개인 재산으로는 초창기에 이 운동의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한계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업대섭은 정부를 설득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국민을 위한 공공도서관 봉사는 정부의 책임인데, 정부를 대신하여 민간운동의 활력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농어촌 도서관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니, 정부가 일정 부분의 사업비만이라도 재정을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였다.

그리하여 1963년부터 문교부에서는 사업비 보조를 해주기 시작하였는데, 첫해에는 40만원이란 소액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액수는 비록 적은 금액이었지만 새로운 이름의 민간운동 사업에 정부가 재정지원을 한다는 자체가 문고 사업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사회인식 제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고보조금은 그후 매년 증가되어 왔는데 1967년도에는 570만원으로 4년만에 약 15배 증액되는 실적을 나타냈다(김중환 1978, 16).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시·군)에서는 마을문고 설치비로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자기 관할 지역 내에 문고를 설치하는 경비이다.

민간단체의 예산편성 내역을 큰 범주로 나누어 보자면, 사업비와 관리운영비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사업비로만 사용하여야지 단체의 관리운영비(인건비, 사무비, 통신비 등)로는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마을문고 진흥회의 재정도 사업비는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하되 단체의 관리운영비는 가급적 자체 힘으로 마련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여 왔다. 사업이 활발해지고 문고 설치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관리운영비의 소요액도 급속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창립이후 그때까지 사재로 관리운영비를 부담해 오던 창설자가 더 이상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부딪치자, 1967년부터 본 사업은 첫 번째의 재정적인 시련을 겪게 되었다. 마을문고 진흥회에서는 이 재정난을 극복키 위해 백방으로 힘을 썼다. 당시 업대섭 회장은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만개의 문고는 하나의 거대한 민중대학으로 볼 수 있다는 신념아래 수다한 재벌에 지원을 호소했다. 나의 매일의 일과는 재벌의 간부 방문이었다. 그러나 헛수고였다. …… 청와대 김학렬 수석비서관(후일 경제기획원 장관)을 방문 호소했다. 자기도 적극 협력할 터이니 이후락 실장께 호소해보라는 말씀이었다. 나는 이실장과 동향 친지라는 고태진씨(후일 제일은행장)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괴롭혔다. 그렇지만 나는 구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드디어 6개월만에 이실장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다(업대섭 1968, 256-257).

필자의 기억으로는, 당시 업대섭 회장이 같은 고향(울주) 출신인 고태진에게 이후락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사업설명을 할 수 있도



록 주선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 이를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그의 집요한 추진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즉, 임대섭 회장은 거의 매일 이른 아침마다 고태진의 자택을 방문하여 대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출근하는 고태진에게 머리 숙여 인사하는 무언의 시위를 통해, 결국 고태진의 마음을 움직여 결국 이후락 비서실장과의 면담약속을 얻어내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위상과 영향력은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당초 면담약속 시간을 훨씬 넘기면서까지, 그 자리에서 이 실장의 마을문고진흥회장 취임 승낙을 받아냈을 뿐 아니라, 재정부담을 할 재계 중심의 임원들을 추천받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결국 이후락 비서실장을 회장으로 하고 경제계의 유지들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67년 10월부터 이사진에서 마을문고 사업의 관리운영비를 충당하게 됨으로써, 이 운동은 의욕적인 사업전개의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60년대 마을문고사업의 재정은 초기는 창설자의 사재로 충당하다가, 63년부터 사업비는 정부보조금, 관리운영비는 창설자의 사재로 분담해 왔으며, 67년 후반부터는 유력한 회장과 이사진이 관리운영비를 출연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마을문고 운동은 당분간 재정불안 없이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7. 마을문고운동에 대한 평가 및 효과 분석

지금까지 살펴본 1960년대의 마을문고운동에 대한 평가 및 분석 중 적절한 관찰이나 연구조사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당시의 마을문고운동의 모습과 성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 7. 1 마을문고운동 모습에 대한 평가

마을문고운동의 스타일이나 운동전개 방향에 대해서는 당시 이 운동을 자주 취재하고 세심히 관찰해온 한 언론인의 분석이 있는데, 비교적 적절한 평가라고 생각된다.

첫째의 분석은, 마을문고운동에 있어서 창설자 개인이 이 운동에 미친 역할을 지적하고 있다(김병익<sup>9)</sup> 1971, 6).

마을문고운동의 특징은 그 창설자가 독서와 도서관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데서 출발, 개인적인 사명감과 창의력으로 육성·발전시켰다는 점이다…… 독서운동에서 개인적인 퍼서널리티는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발상이나 노력은 사회의 어떤 비정상적인 풍조에 일차적으로 저항하며, 그것이 '문화적'이란 명분을 살려 구체적 사업을 벌이는 만큼 별다른 사명감과 창의력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거의 별거벗은 무(無)의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방법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개인의 능력에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즉, 마을문고운동의 정착은 당시 사회환경이 이러한 도서관운동을 수용할만한 태세나 여건이 조성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운동

9) 김병익은 동아일보 문화부기자 시절부터 도서관과 출판분야를 담당하다가, 기자협회장시절 타의에 의해 언론계를 떠난 후, '문화과지성사' 사장으로서 우리나라 출판계와 문단에 크게 기여해온 문학평론가이다.

추진 주도세력들을 포용하면서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엄대섭 개인의 퍼서널리티와 추진력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로, 독서운동을 관념적인 명제로 받아 들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한 마을문고운동은, 문고설치에 치중하면서 양적인 숫자를 바탕으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을 유도해 나갔는데, 이러한 전략에 대해 김병익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독서는 교양 있는 시민의, 창조를 소망하는 개인의 내적(內的) 체험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숫자로 평가될 수 없는 독서가 '사회운동화(社會運動化)' 하는 과정에서 통계로 측정되어야 하는 것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있다……그 어마어마한 숫자는 독서에 무관심한 국민이나 당국에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신문이 독서운동에 대해 지면을 할애하고, 당국이 약속하나마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이러한 숫자의 매력 때문일 것이다……그런데 양(量)에서 질(質)로, 행사에서 생활로 전환하는 데는 이제까지 양적 팽창보다 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여기서부터는 한 개인의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독서운동단체의 힘만으로는 어렵다(김병익 1971, 4-6).

전국 농어촌의 수만 개나 되는 방대한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문고설치 사업을 추진하던 마을문고운동의 현실과 과제를 꿰뚫고 있는 예리한 관찰이라고 여겨진다.

## 7. 2 문고 실태 및 효과 분석

문고운동 초기에 문고의 실태와 효과를 분석한 자료로는 중앙교육연구소의 조사연구 보고서인 '마을문고의 효과에 관한 연구'<sup>10)</sup>가 있다. 이 연구 결과 중에서 초기 마을문고의 실태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김진은 등 1968).

첫째로, 비치도서 수는 100권 미만이 31.1%, 100-200권이 42.2%로 가장 많았다. 문고당 평균 도서 수는 181권인데, 그중 마을 자체의 힘으로 구입한 책이 평균 94권, 외부로부터 기증 받은 책이 평균 87권이였다.

둘째로, 대출도서 수는 월 평균 20권 미만에서 200권 이상까지 큰 차이를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월 평균 66.3권이였다.

셋째로, 독서회의 활동을 보면, 문고관리와 도서구입비 마련을 위한 공동작업 등의 기본적인 활동 이외에도, 성인교육활동(독후감 발표회, 야간교육, 교양강좌), 마을지도 및 미화활동(농업기술보급, 생활개선, 미화작업), 오락활동(음악회, 운동경기), 기타 영세농가 돕기 활동 등이 있었다.

넷째로, 질문지에 응답한 독서회장들의 반응과 실제조사대상 마을주민 면담결과로서 얻어낸 마을문고의 효과로서는, 독서의욕 및 교양향상, 향학열 고취, 과학적 영농방법에 대한 관심, 여가선용과 청소년 선도, 공동목표를 지

10) 중앙교육연구소에서 아시아재단의 재정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 연구는 김진은, 김경일 등 4명의 연구진에 의해 1967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당시 군단위 지역 모든 마을에 문고가 설치되고, 공공도서관과 연계되어 문고가 운영되고 있던 전라남도 강진군을 대상으로 하여 사례연구로 추진되었다. 강진군내 285개 모든 마을에 질문지 조사를 하고, 특별히 6개 마을을 선정하여 연구진이 직접 방문 조사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마을문고운동 시작 후 처음으로 수행된 객관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향하는 협동심양양 등을 들었다.

## 8. 결 론 (정리와 요약)

1961년 엄대섭에 의해 착상되고 추진되어 왔던 마을문고 운동은 그간의 세월을 거치면서 많은 변천을 겪어왔으나, 이제는 이 운동의 추진 과정과 의미를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할 시점이 되었다는 전제 아래, 그 첫 작업으로서 마을문고 운동의 초기 전개과정(운동 형성 배경부터 1967년까지)을 살펴보았다.

마을문고 운동 형성의 배경을 살피기 위해 해방이후 마을문고 운동 시작 이전까지의 독서환경을 분석하였다. 제도적인 독서운동기관인 공공도서관이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너무 열악하여 농민이 이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학생들의 공부방 구실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따라 사회 각계에서는 농촌 독서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순회 문고 운동·농촌 책보내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왔으나 산발적인 운동에 머물러 있었고 그 결과도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마을문고운동 형성에 있어 또 다른 배경 요인으로서, 이 운동을 착상하고 이끌어 왔던 창설자 엄대섭의 정신적 동인을 분석한 결과, 그는 극심하게 가난한 가정에서 불우한 소년시절을 보내면서 자수성가하였고, 정규 교육보다 책읽기를 통한 독학으로 탁월한 자기성취의 능력을 발휘했으며, 인생 진로의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책의 영향 때문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음도 알 수 있었다. 즉, 그의 독서와 도서관에 대한 신념은 젊은 시절 가난

극복을 통한 자아성취 등 인생 역정에서, 책을 삶의 도구로서 인식한 경험적 확신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착상되고 추진된 것이 마을문고 보급운동이었다. 마을문고는 정규 도서관을 축소한 개념에 따라 도서관적인 시각으로 전개되는 도서관운동임을 천명하고, 60년대의 농촌사회의 전통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그 설치 대상 지역을 주민이 쉽고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자연부락 단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마을문고는 해방직후의 일방적인 책보내기 운동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보고 싶은 책을 구입해 나가면서 문고를 자율적인 방법으로 관리·운영하는 독서운동을 표방하였으며, 공공도서관을 대치하고자 하는 독서시설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을 보완하며, 궁극적으로는 공공도서관 시스템으로 편입되고자 하는 이상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문고운동은 처음부터 문고의 지도 육성사업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마을단위에 독서회 조직을 권장·지도하여 합리적인 문고관리를 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한 지도·교육은 매월 발간하여 무상 배부하는 잡지형 기관지에 크게 의존하였으며, 문고 지도자 교육행사와 순회지도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하였다.

이 운동 전개에 필요한 재정은, 초창기에는 창설자의 사재로 충당하였으며, 63년부터 사업비는 정부보조금, 관리운영비는 창설자의 사재로 분담해 오다가, 67년 후반부터는 유력한 회장과 이사진이 관리운영비를 출연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마을문고 운동은 초기의 불

안을 씻고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초기 마을문고운동을 발전시킨 원동력은 창설자 엄대섭 개인의 퍼서넬리티와 추진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문고운동 추진전략은 독서운동을 관념적인 명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를 마을단위 문고설치라는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한 후, 양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정부와 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질적인 육성을 도모하지는 전략을 구사하였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강예권. 1970. 마을문고 독서회 운영과 지방 공공도서관의 활동. 『도서관』, 25(6): 28-29.
- 김병익. 1971. 언론인이 본 독서운동의 현황. 『도협월보』, 12(9): 4-9.
- 김영문. 1948. 도서관과 성인교육: 사용과 이용에 있어서. 『문원』(국립도서관보), 31: 2.
- 김중천. 1991. '마을문고' 지를 통해 본 새마을문고 운동: 특히 1964년을 중심으로. 『상명여대 새마을연구』, 8: 9-24.
- 김중환. 1978. 『마을문고 운영과 이용자에 관한 연구: 폴브라이트-헤이즈 프로그램 연구보고서』. 서울: 마을문고본부.
- 김진은, 김경일, 노공근, 차운순. 1968. 『마을문고의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 중앙교육연구소.
- 남상영. 1958. 사회교육 실시에 대하여. 『문교월보』, 42: 29-35.
- 데이비드 케이지 등 저, 김두홍·정필모 옮김. 1970. 아시아 8개국의 도서관 발전. 『발전도상국의 도서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54.
- 『동아일보』. 1956. 농촌문고를 설치, 전국 천육백개 소의 모범 농촌에. 9월16일.
- 마을문고진흥회. 1962. 『마을문고 설립과 운영』. 서울: 동진흥회.
- 문교부. 1958a. 문교행정 중요 시정 업적. 『문교월보』, 39: 76.
- 문교부. 1958b. 농촌문화 향상을 위한 유희도서관의 수집. 『문교월보』, 40: 117-119.
- 문교부. 1958c. 정부수립 10년간의 문교행정 업적 개요. 『문교월보』, 41: 123.
- 문교부. 1959. 문교행정 업적. 『문교월보』, 50: 33-46.
- 문교부. 1960. 문교시정 계획. 『문교월보』, 51: 11.
- 박경용. 1981. 『막사이사이상 수상자들의 외길 한평생』. 서울: 장학사.
- 박봉석. 1947. 一郡一館. 『문원』, 12: 1.
- 박희영. 1947. 순회문고론. 『문원』, 17: 1.
- 새마을문고중앙회. 1991. 『새마을문고 편람』. 서울: 동중앙회.
- 서명원. 1971. 온마을 교육에 있어서의 마을문고의 역할. 『도협월보』, 12(11): 2-5.
- 심의순. 1975. 농촌지역사회에서의 마을문고운영에 관한 연구: 경북 청송군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사업대학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엄대섭. 1968. 농어촌에 심는 독서의 씨앗: 마을문고 설치 1만개를 돌파하고. 『신동아』 47: 250-257.
- 엄대섭. 1981a. 도서관 운동 30년을 회고하며 (2). 『도서관』, 36(1): 37-38.
- 엄대섭. 1981b. 도서관 운동 30년을 회고하며 (3). 『도서관』, 36(2): 82-83.
- 『월간 마을문고』, 1964 - 1974.
- 이선근. 1955. 당면한 문교시책. 『문교월보』, 20: 6-7.
- 이연옥. 2000a.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의 전개과정: 해방이후부터 한국전쟁까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2): 223-252.
- 이연옥. 2000b.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의 전개 과정에 관한 고찰: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중심으로. 『도서관』, 55(3): 67-117.
- 이용남. 1973. 마을문고의 오늘과 내일. 『도협월보』, 14(9): 9-11.
- 이용남. 1977. 공공도서관과 마을문고의 연계 활동: 관외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도서관』, 219(5): 34-38.
- 이용남. 1979. 마을문고의 이념과 원리: 공공도서관 운동의 측면에서. 『국회도서관보』, 16(3): 63-69.
- 이용남. 1985. 지역단위 새마을문고의 협동운영에 관한 연구. 『새마을운동 발전전략 연구』. 서울: 새마을운동중앙본부. 543-589.
- 이재욱. 1935. 『농촌 도서관 경영법』. 서울: 한성도서주식회사.
- 이재욱. 1947. 농촌과 독서. 『문원』, 19: 1.
- 日本圖書館協會 マウル文庫調査研究臨時委員 會. 1987. 『マウル(村落)文庫調査研究報告書』. 東京: 동협회.
- 최정식. 1981. 마을문고의 실태와 사회교육적 기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최제만. 1959. 문맹퇴치 교육에 관하여. 『문교월보』, 49: 52-58.
- 한국농촌사회연구회. 1965. 『농촌사회학』. 서울: 민조사.
- 황종건 등. 1966. 『한국의 사회교육: 우리 나라 성인교육의 역사적 변천과 현황』. 서울: 중앙교육연구소.
- Kaser, David. 1966. Korean Micro-libraries and Private Reading Rooms. *Library Journal*, 91(22).
- Kim, Choong Han. 1978. Reading Public of the Mini-Libraries in Rural Korea. *Libri*, 28(3): 215-227.
- Ohm, Dae-Sup. 1979. A Grass-roots Reading Movement in Korea. *Asian Book Development Newsletter*, 11(2).
- Ramon Magsaysay Award Foundation. 1980. Citation: Ohm Dae-Sup, The 1980 Ramon Magsaysay Award for the Public Service.[cited2000.10.10] <[http://rmaf.xorand.com/rmafweb/documents/awardee/cit.../od\\_01cit.htm](http://rmaf.xorand.com/rmafweb/documents/awardee/cit.../od_01cit.htm)>
- Ramon Magsaysay Award Foundation. 1980. Ohm Dae-Sup Biography for the 1980 Ramon Magsaysay Award for the Public Service.[cited2000.10.10] <[http://rmaf.xorand.com/rmafweb/documents/awardee/biography/od\\_01bio.htm](http://rmaf.xorand.com/rmafweb/documents/awardee/biography/od_01bio.htm)>